#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 필요"

## 우범기 전주시장, 국회에 건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전 역사·문화재 보존 상황 현장시찰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회에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전주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민선8기 전주시 핵심사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1일 역사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전주 경기전을 찾아 시설 및 문화재 보존 상황을 둘러봤다.

이번 시찰은 유·무형 문화재 보호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홍익표 위원장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주·이개호·이병훈·이상헌·임오경·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용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문체위원들은 이날 오전 남원에 도착해 만인의총을 찾아가 참배하고 옻칠공예관을 현장시찰했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국립무형유산원과 경기전을 방문했다.

특히 경기전을 방문한 위원들은 경기전의 대표 문화재 활용사업인 '왕과의 산책' 배우들의 역사해설을 청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

또한 1410년(태종 10년)에 창건되어 700년 이상을 풍패지향 전주를 지켜온 경기전 정전과 태조 어진의 보존 실태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를 찾은 국회 문체위원들에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후백제가 과거 전주를 중심으로 36년간 고유의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돼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추가해 후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후백제문화권에 속한 7개 지자체(전주·문경·완주·논산·상주·진안·장수)는 지난해 11월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에서 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정비법에 후백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로서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을 보존·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국회의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지구사랑 두 바퀴 대축제 개최

## 자전거의 날 기념… 종합경기장서 휴비스 전주공장까지 '대행진'

'2022 자전거의 날 기념 지구사랑 두바퀴 대축제'가 열린 지난 22일, 자전거 대행진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2 자전거의 날 기념 지구사랑 두바퀴 대축제'를 개최했다.

'슬기로운 탄소중립! 두바퀴로 달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생활 속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함께 타고 즐겼다.

먼저 첫날인 21일 오전에는 17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안전모 전달식 △어린이 자전거 안전수칙 낭독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 공연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의 VR교육 △자전거 자전거 벌룬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안전교육과 함께 자전거 이용의 즐거움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안전모 전달식의 경우 첫날 행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모 500개를 전주시에 전달하고, 이를 안전모 전달식에 참여한 어린이와 22일 자전거 대행진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독려했다.

이어 첫날 오후에는 추명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크 위원장의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진행됐다.

대축제의 둘째 날인 22일에는 전주시 주관으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성주 국회의원, 안병용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 한민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기념식과 700여명이 참여한 자전거 대행진이 펼쳐졌다.

전주시 홍보대사인 라스트포원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념사와 내빈들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진 및 UCC 공모전 시상식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어린이합창단 공연 △지구살리기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 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팔복동 휴비스 전주공장 인근까지 왕복 7km 구간을 함께 달리는 자전거 대행진을 펼쳤다. 또, 행사장이 설치된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외발자전거 체험과 자전거 쿠키 꾸미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또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의 탄소중립포인트 가입홍보 및 친환경에코백 만들기 체험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전거발전 체험 부스 등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는 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자전거 정비·점검 부스를 운영하고,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또 전주덕진경찰서와 덕진소방서 구급대 등 100여 명의 행사지원인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 한달수 덕진경찰서 과장 '대통령상'

## 경찰의 날 맞아 수상… 30년 6개월 경찰생활 소회 밝혀

"30년이 넘는 경찰 생활 동안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사건을 대했습니다."

지난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대통령상을 받은 전주덕진경찰서 한달수(사진) 형사과장을 만나 경찰관으로서 지난 30여 년의 소회를 들어봤다.

한 과장은 "지난 1992년 3월, 경찰에 첫발을 내디뎠으니 30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대부분 수사부서에서 근무해 쉽지 않은 경찰 생활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보람'이 지금의 저 한달수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사회 정의를 세울 수는 없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사건을 대해 왔다"며 "때로는 쉽지 않은 사건을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끝을 보려고 애를 써서 해결했을 때 희열과 보람을 느끼고, 그 맛에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다"고 웃음 지었다.

경찰 생활 동안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언론에도 많은 사건 기사 해결이 나왔고, 사건 현장에는 꼭 그가 있었다.

그는 범인만 잘 잡는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공부하는 경찰'이기도 했다.

한 과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공부하여 그들이 가진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의자들 중에도 가슴 아픈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들이 가진 나름의 응어리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얼마나 만족을 느끼게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겸손함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그는 경찰관으로서 남다른 자긍심으로 직원들에게 품위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족의 소중함과 국가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모범을 보이는 경찰이었다.

전북 경찰 수사에 한 획을 그은 한 과장은 후배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선호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과장은 "현재 수사 환경이 좋지 않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수사 부서에 영입돼서 사회 질서와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전주시, 국장급 인사 단행

최병집 덕진구청장

엄익준 완산구청장

전주시가 지난 10월 21일자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이 전북도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전보 인사에서는 최락기 책의도시인 문교육본부장이 기획조정국장, 심규문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이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현창 덕진구청장이 자원순환본부장, 김병수 완산구청장이 도서관본부장,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이 덕진구청장으로 내정됐다.

전입 인사에서는 김종택 복지환경국장, 엄익준 완산구청장 등이 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상하수도본부장,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대중교통본부장, 배희곤 생태도시국장 직무대리는 도시건설안전국장 직무대리가 된다.

이밖에 김문기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으며, 박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황권주 기획조정국장은 각각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정책과로 파견 발령받았다.

/김재훈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